

소녀상 저작권



‘평화의 소녀상’은 수요집회가 1000번째를 맞던 2011년 12월 14일 처음 세워졌다. 애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 하는 비석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조각 작품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단발머리에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 대표적이지만, 손에 동백꽃을 들고 있거나 등에 날개를 단 소녀상도 있다. 조개를 캐다 일본군에 잡혀간 할머니의 사연을 담은 소녀상 옆엔 호미가 담긴 소쿠리 조각이 놓여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수요집회가 1000번째를 맞던 2011년 12월 14일 처음 세워졌다. 애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 하는 비석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조각 작품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단발머리에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 대표적이지만, 손에 동백꽃을 들고 있거나 등에 날개를 단 소녀상도 있다. 조개를 캐다 일본군에 잡혀간 할머니의 사연을 담은 소녀상 옆엔 호미가 담긴 소쿠리 조각이 놓여 있다.

▶2015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소녀상 설치 모금을 한 20대 남자가 4200여만원을 기부받아 유용하거나 횡령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봉사 활동으로 유명했던 이 사람은 "큰돈이 생기니 친구한테 술도 한잔 사고 이 정도는 관찮겠지 하며 쓰기도 했다"라고 말한 뒤 잠적했다. 개인 계좌로 기부받고 장부 정리도 전혀 들어맞지 않은 게 현재 윤미향씨에게 쏘아주는 의혹과 복사판이었다.

▶강원 태백시에 최근 설치된 소녀상이 제막식도 못하고 한 이불로 꼼꼼 싸매진 채 천대받고 있다고 한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최초의 소녀상'을 만든 부부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폐기 처분을 요구했다. '원조 작가' 부부가 그간 100개 가까운 소녀상을 만들었고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소녀상을 '예술 작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누구든 만들 수 있는 모두의 소유로 볼 것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막상 원조 작가가 저작권 소송을 예고하면서 비슷한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소녀상을 특정 작가가 거의 독점 제작해왔고 저작권 다툼까지 벌이다니 입맛이 쓰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는 것은 다 같은데 어떤 소녀상은 추출까 봐 목도리를 두르고 어떤 소녀상은 빛도 못 본 채 낡음을 뒤집어쓰고 있다.

위안부 단체가 왜 상관없는 민주당과 한 몸처럼 돼 있나

윤미향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총장이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아내라고 한다. 사무총장은 정의연 부실 회계장부 작성과 관리의 실질적 책임자이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자 "고령의 심신 취약 상태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정의연 사무총장과 청와대 비서관이 부부 사이라고 해서 정의연 사태를 청와대와 연결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의연과 윤씨를 왜 그렇게 감싸고도지 이해할 수 있는 한 배경은 뭘 것이다.

정의연과 전신 정대협 출신 인사들은 여권 곳곳에 포진해 있다.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 신미숙 전 청와대비서관 등이 정대협 출신이다. 1990년 초 시작된 위안부 운동을

발판 삼아 제도 정치권에 진출한 것이다. 윤씨 역시 정의연 활동을 내세워 총선 공천을 받았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현 정권 핵심부 곳곳에 포진한 것에 빚대 정의연은 '여성 참여연대'라는 말이 나온다. 여권에서 활약하는 여성 상당수가 정의연에 직·간접으로 몸담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위안부 진상 규명과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 단체다. 국내 현실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위안부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왜 현실 정치에 진출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나. 위안부 할머니가 "정의연에 30년간 속을 만큼 속고 당할 만큼 당했다"고 절규했지만 민주당 대표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라고 했다. 때만 되면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반일 죽창가를 부르던 청와대는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위안부 운동을 빙자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다는 것을 기생충은 안다. 영화에서 기택의 아내를 자기네 처지를 바꿔벌레로 자조

한다. "박 사장이 집에 오면 바퀴벌레처럼 숨겠지"라면서, 기생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분 안좋아? 고기 먹을래?

- 다양한 고기
- 순대
- 막창
- 곱창
- 돈까스
- 김치
- 손만두

- 편육
- 족발
- 떡갈비
- 각종 탕
- 돼지국밥
- 내장탕
- 갈비탕
- 사골육수
- 갈비탕

우리에게 고기 먹을래?

GOGINARA 고기 나라
MEAT SHOP KOREAN BBQ 403) 282 9033

#33-3616 52 Ave NW, Calgary

(...8페이지에 이어)으로 북한군 2만여명의 총공세를 한 달 이상 막아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도망치려 하자 백 장군이 맨 앞에 나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라"고 독려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미군에 앞서 평양에 입성했고, 1·4후퇴 뒤 서울 탈환 때도 최선봉에 섰다. 6·25의 살아 있는 전사(戰史)이자 전설이다. 그는 국군 창설에 참여했고 휴전회담 대표를 지냈으며 한국군 최초 대장에 올라 두 차례 육군참모총장을 맡으며 군 재건을 이뤄냈다. 이런 백선엽을 미군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군 장교' '최상의 야전 지휘관' '참모와 지휘관 모두 탁월'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취임하면 백 장군을 찾아 전임신고를 했다. 단

순한 '한·미 동맹의 상징'이 아니었다. 백 장군을 군 작전가로서 존경했다. 그런데 여권 지지 세력은 나라를 지킨 백 장군을 깎아내리기만 한다. 그의 공훈에는 눈을 감고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복무한 기록만 부각시켜 '독립군 토벌 친일파'라고 한다. 이렇게 친일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작 자신의 부모가 진짜 친일파인 경우가 솔하게 드러났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백 장군이 "당시 중공 팔로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 했다"고 했으나 이는 외면한다. 이 정부 광복회장은 "백선엽은 철저한 토착 왜구"라고 했고, 현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백 장군을 민족반역자로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침 공로로 북한에서 중용된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육사는 백 장군 활약을 그린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그의 훈장을 박탈하는 주장이 나오더니 이제는 현충원 안장까지 시비 거는 것이다. 이들이 백 장군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친일파여서 아니라 6·25 때 공산군과 싸워 이겼기 때문일 것이다. '친일파'라는 것은 대중의 반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안식처다. 백 장군이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6·25 때 백 장군의 지휘 아래 목숨을 바친 12만명의 국군 선열이 통탄할 일이다.

'기생族'들

정의·공정을 외치면서 남의 몫을 가로채고 더 큰 권력을 쥐려 국민 세금에 빨대 꽂는 좌파 기생族이 너무나도 많다

다. 현실 세계엔 또 다른 형태의 '이념형 기생충'들이 존재한다. 입으로 정의와 공정을 독점하면서 남의 몫을 올라타고 이익을 가로채는 좌파 위선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기택네는 먹고살기 힘들어 기생충이 됐지만, 좌파 기생족(族)은 남을 이기고 더 큰 권력을 쥐려 기생충 짓을 한다.

지난 총선, 우리는 국민 세금에 빨대 꽂은 정치권력의 실상을 생생히 목격했다. 온갖 명목 붙여 현금을 퍼붓고,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수십조 원 규모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었다.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이란 명목으로 1조원어치 상품권을 뿌리고, 선거에 이기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노골적 매표(賈票)에 나섰다. 국민을 위하는 양생색 냈지만 그 돈은 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 돈으로 선거운동하고 유권자 세금으로 정파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어떤 운동권 출신은 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구 소재 공공기관 이사장에 낙하산 임명됐다. 그는 임기 내내 기관 돈으로 선거운동 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지역 구민을 초청해 행사를 갖고, 자기 이름 붙은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노인정에 이사장 명의 상품권을 뿌렸다. 온갖 방법으로 자기 PR을 하더니 총선 직전 중도 사퇴하고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그렇게 법안카드로 밥 사고 경조사비 쓰는 '낙하산 기생충'들이 공기엄마다 진을 치고 있다. '탈원전 기생족'도 있다. 정권 비호를 받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탈원전 정책에 기생하며 태양광 이권을 씹쓸이하고 있다.

지금 재판을 통해 재방영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행각을 보면서 영화 '기생충'을 다시 떠올렸다. 영화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기택의 아들딸은 과외 일자리를 따내려 가짜 재학 증명서를 만든다. 조국 부부는 총 18건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봉사 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재판에서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 직인을 오려내 가짜 표창장을 만든 것은 기택의 딸이 포토샵으로 직인을 따붙인 것과 관박이다. 기택의 자녀들은 위조 증명서로 언덕 위 박 사장 집에 진입했고, 조국 부부 자녀는 위조 문서로 대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래도 기택의 아들은 "아버지, 전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며 당당하다. "내년엔 꼭 이 학교에 들어갈 거니까"란 이유로 조국 부부도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 방해 세력의 음모"니까, 자기 합리화의 최면이 '기생충들의 죄의식을 없애고 있다. 선악의 구도와 배경은 다르지만 영화 속 기택네와 현실 속 조국 일가는 평행 세계처럼 보인다. 봉준호 감독이 마치 조국 사태를 예견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린 음울한 블랙 패러디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계급의 장벽 앞에서 기택 가족은 부자에 기생하는 삶을 택한

이 정부는 국민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말라고 했다. "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